

분야별 심포지움 참석보고

간호와 일차건강관리

전 산 추
(연세대 간호대학장)

필자가 ICN 4년대회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3 번째이다. 15차대회는 Mexico에서, 16차는 Tokyo에서 각각 열리었는데 그 때는 회장의 자격으로 한국대표로 총회의 회무처리와 기타 의무적인 행사에 참석하기에 회의가 마감될 때까지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빴었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차분히 객관성을 비우고 시종 참관하는 입장에서 대회의 진행·상황이나 내용의 성격 등을 분석하면서 참석할 수 있어 더욱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대회는 미국 Losangles의 Convention Center에서 열렸었는데 89개 회원국에서 약 10,000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개최식에 참석한 손님과 방정객을 포함하면 약 만여명이나 된다고 보도할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한국에서 참석한 회원은 재미 회원을 포함 100명 이상

이나 되어 한국의 국력을 과시하였다.

회의는 6월 28일에 개최하여 7월 3일에 폐회하였는데 이번 대회를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다.

그 첫째는 개최식이고, 둘째는 각국 대표자회의(CNR회의) 즉 회무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셋째는 이 대회의 핵심적 활동인 학술대회였으며 마지막인 넷째는 폐회식이었다. 필자는 여기서 학술대회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학술대회

학술대회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있었는데 Plenary session과 Concurrent session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Plenary session은 Convention hall에서 전체적으로 모였고 Concurrent session은 소회의실에서 분과별로 각각 모였는데 이 때는 같은 제목 아래 두개의 Group으로 각각 나누어 Pannel형식으로 진행했다.

각각 다른 나라의 Pannelist가 참석한 국제 Pannel과 또는 각 회원국의 간호협회가 하나의 제목을 담당하여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었다.

학술대회 첫날 Plenary session에서는 Alice J. Baumgart 캐나다 윈스태학교 간호대학장의 “새로운 세기를 향한 간호”라는 주제 강연이 있었다.

그의 강연 요지는 일차건강관리와 간호원의 사회적 및 정치적 진출의 두가지 방향을 지적하며 “미래의 간호는 일차건강관리의 역할에 중점



을 들것과 이와같은 Challenge는 장차 간호원의 전문직 단계는 정치적 힘을 갖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뜻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계속하여 이에 따른 질의와 토의가 있었다.

이제 필자가 참여하기로 되어있는 학술대회 제 2일 program중 Concurrent session에 있었던 발제 “우리 함께 보다 바람직한 세계를 건설하자 : 특히 일차건강관리 실무에 있어서의 동역자로서!” (“Building a better world together: Partners in practice especially in primary health Care”)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Concurrent session 제2일의 1번 발제 :

이 Pannel은 International Pannel이었다. Moderator는 Moiga Sorvettula씨였는데 그는 WHO의 Nursing program manager in Finland였고 역시 Finland인이었다.

그는 Pannel의 구조를 ① goal(목표) ② 일차건강간호의 역할 ③ 참여도 등으로 이끌어 갈것을 예시했다.

그리고 첫째 연자 Hilka Sammal Korpi (Finland의 Helsinki시의 보건과의 기획관 : 간호학)은 “오늘날 일차건강관리는 보건의 정수(본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자기 나라에서는 Primary Health Care에 관하여 1973년경에 주장되기 시작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하였다고 하였다.

일차건강관리(P.H.C.)는 양호교사(학교간호원), 지역사회 건강간호사, 물리사, 의사, 치과의, 사회사업가 등 각자 다른 특수 전문직업 종사자들이 한 team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의학적 치료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하나의 team이 한 환자에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인구문제도 계속 판여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CHP)에 대하여 평가하기는 아직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1980년 일차건강관리 사업의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간호원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

는 그의 연구발표를 요약하면 Primary Health Care의 개발책은 :

1. 자기 일 PHC에서 책임지고 시범한다.
2. Consumer(대상자)의 요구에 기쁨으로 만족하도록 충족시켜 준다.
3. 자기가 책임지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고 충분히 이해시킨다.
4. Verginia Henderson의 원리 등 현대 지식을 적용함과 동시에 역할을 확대한다.
5. PHC시행과정에서 방법을 계속 연구 발전시킨다.
6. 계속적인 연구를 과제로 한다.
7. 국제적으로 발전하는 단계(developing standards)에 들어간다.
8. 스스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만족할 수 있는 목적 중심의 계획을 설정한다.
9. 보건 team과 함께 일하고 과학적, 전문적 이론과 실제의 방법을 서로 나누어 주는 등 성공적 협력을 한다.
10. 간호는 오늘날 인간의 소망이요, 기본원리요, 가족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연자

Mary Muansa Zyongw는 Zambia의 Lusaka市, U.T.H. School of Nursing교장이며 그는 일차건강관리(P.H.C.)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이룩하려면 돈(경제적)과 기술과 그리고 직접적 협조가 요망된다고 하면서 발전한 나라(선진국)와 발전도상국과의 P.H.C.를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르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노인문제는 수준 높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문제는 지역사회 보건개발부서의 설치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Zambia의 P.H.C. 사업현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는데 이를 요약하면 :

1980년 Primary health Care시행을 위해 정부는 6주간의 훈련을 시행했다. 이 내용은 ①영양문제 ②위생문제 ③가정방문, ④진단(신체사정) ⑤치료, ⑥지역의 예방주사 등이었으며,

Village대상으로 13지역으로 나누어 Service하도록 하였다.

토의 시간에는 :

대체적으로 질문 혹은 문제 제출자는 거의가 다 아프리카 여러나라 회원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행되는 일차건강관리현황과 그들의 연구에서 발표하는, 또는 문제제기 및 토의 등을 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 그들 나라의 국력과 경제 및 문화의 수준을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차건강관리는 국민이 건강문제가 생길때 처음으로 받게되는 건강관리 및 보호를 뜻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값싸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기초적 국가보건의료 서비스이다. 그러기에 일차건강관리는 그 나라 또는 지역사회 자원과 경제, 보건인력 등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그 수준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렇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보건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은 쉬우나 여기 1차에서 2차로 후송할 수 있는 잘 조직된 후송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 조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마 장차 이문제에 봉착되지 않겠나 하는 예견이 들었다.

앞으로 Primary Health Care는 지역사회 주민을 보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한편으로 지역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발전되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성과 정치성을 지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

원칙적으로 Primary health Care는 국가의 정책 및 기책이 국민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보건 사업과 분리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반드시 분석, 기획과 집행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에서 이룩되고 경

국교의 낭비와 과잉 치료의 폐단을 막기위한 것이며 치료에 더하여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조기 치료, 재활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차건강관리의 효과적인 수행은 의료요원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지역사회 주민들이다. 주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교육하고, 조직하고, 일차건강관리 사업에 그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일차건강관리의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사업의 계획, 집행 및 평가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보건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원리적인 이념이 될 것이다.

아직도 일차건강관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보건요원자체에게도 부족하며 특히 보건전달체제 면에서나 국민이나, 정부의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직도 일차건강관리에 관한 산적한 문제에 Challenge를 받으며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너무 커서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재인식하며 토의를 나눴다.